

96

사료제조업체 근로자에게 항생제에 노출된 후 발생한 건선

성별	남	나이	34세	직종	생산직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전○○(34세, 남)는 1988년 10월부터 사료 제조업체인 S사에서 약품투입공정에 근무하던 중 1990년 말부터 이마와 두피에 부스럼이 발생하였고 1996년부터 전신으로 확대되었고 1997년 4월에 건선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전○○는 약 3년 6개월동안 약품투입 공정에서 10여종 이상의 항생제류와 30여종 이상의 영양제(비타민, 미네랄)를 5~6분 간격으로 투입하였는데 이 들 약 50여종의 투입 물질 중 10여종은 직접 계량하여 투입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투입되었다. 이때 사용된 항생제는 테트라싸이클린, 하이그로마이신 등이었다.

3 의학적 소견

전○○는 1988년 10월에 입사한 후 약품투입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를 시작한지 8개월 쯤부터 이마와 두피에 동전 크기의 부스럼이 발생하였다. 1991년 4월부터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부스럼은 확대되지 않았다. 1994년 7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다시 약품을 취급한 후 1996년 말부터 다리와 등으로 부스럼이 나타나서 전신으로 확대되었다. 음주는 주1회 소주 1병정도 이었는데 피부질환이 나타난 후



금주하였으며 흡연력은 15갑·년이었다.

4 고 찰

건선의 악화 또는 유발인자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약제는 크게 네 개 군으로 최근까지 비교적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항말라리아제, lithium, β 차단제와 스테로이드,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, 페니실린과 테트라싸이클린과 같은 약물이다. 항말라리아제는 건선을 악화시키는 작용만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나머지는 건선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.

5 결 론

전○○의 건선은

- ① 입사 이후 발생하였고(본인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는 없음)
- ② 건선의 유발 또는 악화인자로 알려진 테트라싸이클린 등 약품에 노출되었고
- ③ 약품 노출 시기와 증상 변화 시기가 일치하므로

작업 중 노출된 테트라싸이클린 등의 약품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.